보조비 슈퍼 베스트 차례

Livin' On A Prayer	5
Keep The Faith	14
Always	31
ଃକାଠାର ' Wanted Dead Or Alive	40
원티드 데드 오어 얼라이브 Lay Your Hands On Me	50
레이 뉴어 핸즈 온 미 You Give Love A Bad Name	66
유기브 러브 어 배드 네임 Bed Of Roses	76
베트 어브 로지스 Tokyo Road	90
토쿄 로르 Bad Medicine	100
배드 메디슨 I'll Be There For You	112
아일비데어포유 In & Out Of Love	124
인 앤드 아웃 어브 러브 Runaway	134
런어웨이 Never Say Goodbye 네버 세이 굿바이	144
Blaze Of Glory 블레이즈 어브 글로리	152
She Don't Know Me	165
Shot Through The Heart	174
Breakout ————————————————————————————————————	190
Get Ready	207
Silent Night	222
Living In Sin 의 인신	230
Dry County 드라이 카운티	238
I Believe	252

LIVIN' ON A PRAYER

리빙 온 어 프레이어

by Jon Bon Jovi, Richie Sambora and Desmond Child

기타에서 토킹 모듈레이터를 사용한 유니크한 기타 사운드를 듣는 것이 가능한 곡이다. 백킹의 코드 워크 부분에 브러싱을 솜씨 있게 받아들여 리듬 플레이를 행하거나 시원스럽게 억양을 붙여가자.

키보드는 몇 종류의 에레피와 스트리스가 번갈아 등장하여 곡에 화려함을 나타내고 있다. 테크닉적으로나 구성면에서 봐도 혼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곡이지만 음색을 재빠르게 전활할수 있도록 연습할 것. 베이스는 8분 연주가 메인이나, 도처에 기타 리프와의 유니즌 플레이가 등장한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도 움직임이 있는 프레 이즈로 꽤 칼러플한 베이스 라인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리듬의 흐트러짐에 주의하도록 한다.

드럼은 인트로 이외에서는 하이해트의 새김은 4분으로, 베이스 드럼도 포함해서 리듬 패턴은 극히 심플하다. 하이해트의 오픈을 섞는 등 악센트 붙임에도 연구를 기울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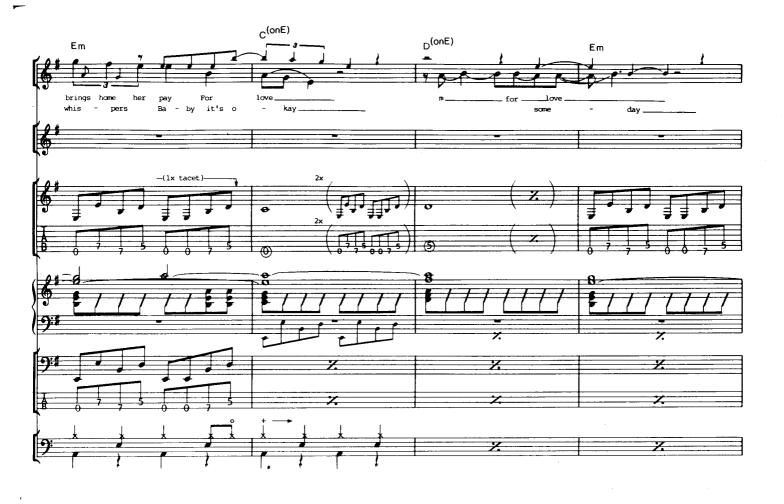


① (Kb): 22마디에 걸쳐서 계속되는 소프트하고 가라앉은 스트링스계의 음. 신서사이저를 1대 홀드 해두자.











강조한다.



(2) (Gt) : 2박 셋잇단옴표 리듬에 주의하자. 셋째 박은 스타카토하듯이. 넷째 박 글릿산도는 다이내믹하게 친다.

(B) (Kb.): 멋진 고음의 일렉트릭 피아노 첼레스타같은 맑고 가벼운 음색이다.

(1) (Ba.): 꽤 움직임이 많은 프레이즈이므로 이동할 때 피킹에 주의해야 한다. 또, 싱커페이션 리듬에도 주의한다. (\mathfrak{g}) (Dr.): 기타와 베이스에 맞춘 2박 셋잇단음표의 리듬이다. 넷째 박은 하나로 일치되지 않게끔 치자.





②) (Gt): 큰 초킹 8-비브라토가 포인트다. 또 후반의 글릿산도+해머링의 프레이즈는 매끄럽게 치도록 한다.



KEEP THE FA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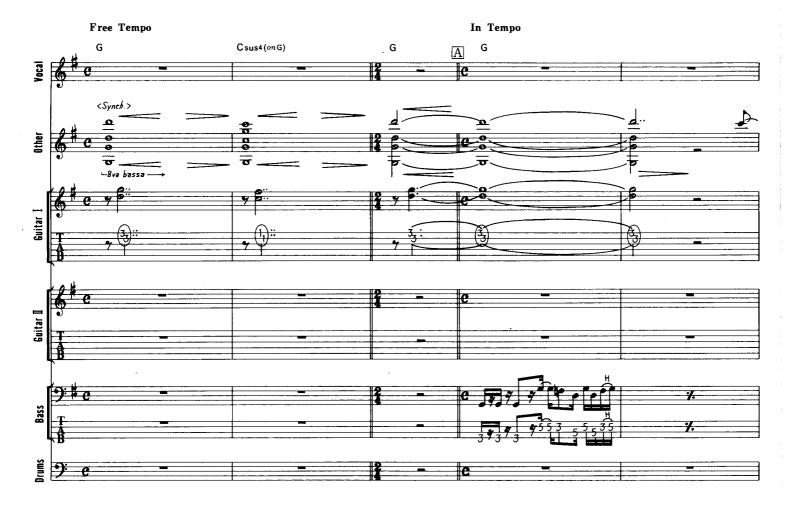
깊 더 페이쓰

by Jon Bon Jovi, Richie Sambora and Desmond Child

기타 파트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드럼과 얽히게 한 커팅일 것이다. 브러싱과 실음과의 사용 구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 곡이 아니면 낼 수 없는 리듬감이 나온다. 전편을 통해서 리듬감은 동일하지만 뮤트 패턴 등도 등장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음색이나 장면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트레몰로계의 에펙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베이스는 곡을 통해서 동일한 비트의 플레이로 돼 있다. 피크로 치면 리듬을 유지하기가 쉬울 것이다. 루트음과 온 코드와의 구분 사용이 애매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스케일 포지션이 일정함으로 드럼과의 콤비네이션을 잘 이루면서 차분하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픽킹의 강약에 의해서 음색을 콘트롤 하고 있는 점도 지나치지 않도록 한다.

드럼은 전체로서는 8개의 새김인데 16비트의 리듬감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 하이해트 워크나 라이드 심벌 컵의 사용법 등을 잘 연구해서 이 곡의 이미지를 살려보자. 스네어의 악센트 구분 사용, 리듬을 따라 새겨가는 것도 중요하다. 베이시스트와의 얽힘도 잘 생각해서 연주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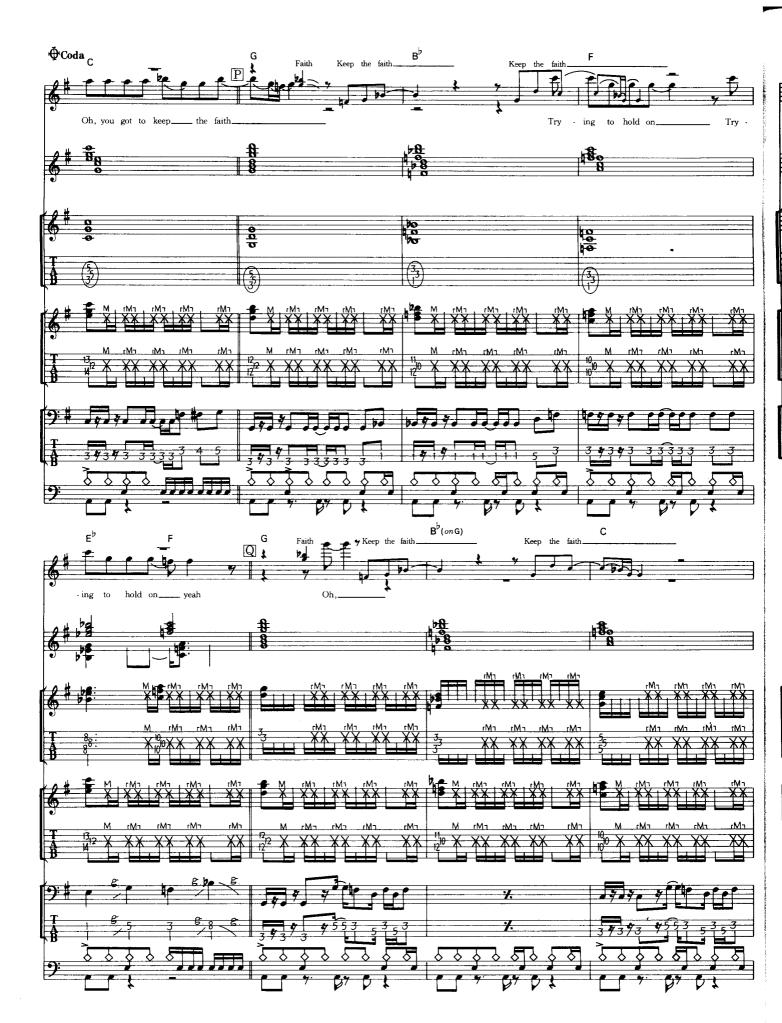
















ALWAYS 율웨이스 Words & Music by J. Bon Jovi

이 앨범에 처음으로 수록된 신곡으로 싱글 커트된 넘버이다. 슬로 템포의 곡이므로 각파트(특히 드럼 & 베이스)는 리듬에 세 심한 주의를 기울이자. 키보드는 스트링스와 오르간이 있고 그 위에 피아노가 들어가 있으므로 2단으로 나누어서 적었다. 코드 는 add 9 코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독특한 분위기를 내 고 있다. 기타는 1단으로 적혀 있으나 장소에 따라서는(솔로 파트 등의 부분) 아래 위로 나뉘어 있으므로 주의하자. [편의 아르페 지오 부분은 에펙터로 꽤 강하게 코러스를 걸고 있다. 기타 솔로는 간주와 엔딩에 있고 노멀한 펜타토닉 스케일을 사용한 플레이이다. 슬로 템포인 만큼 박 머리의 타이밍을 확고히 맞추어 연주하지 않으면 빨라짐으로 주의하자. 드럼은 집의 4마디부터 [단의 4마디까지가 브러시를 사용한 플레이로 돼 있다. 뛰는 보컬을 노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도 베이스와 함께 확고히 리듬을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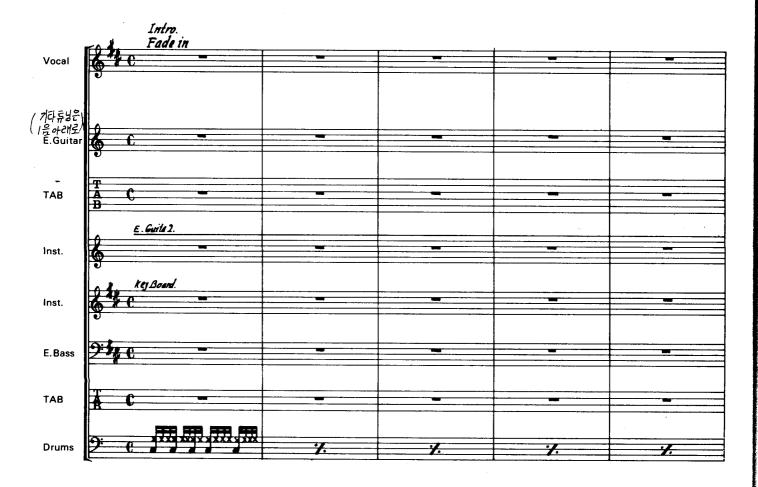
LAY YOUR HANDS ON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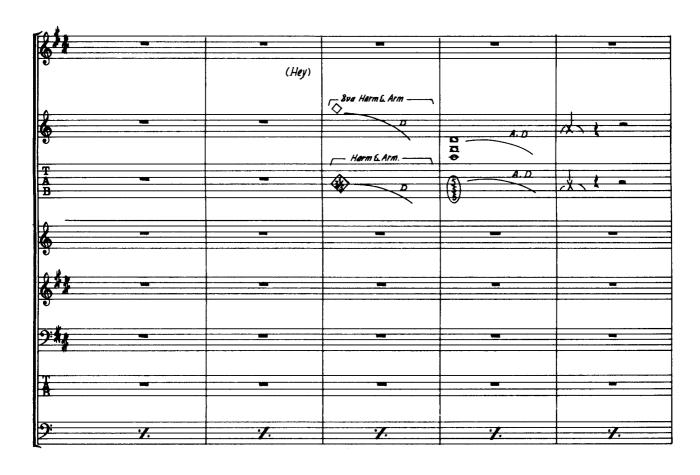
레이 유어 핸즈 온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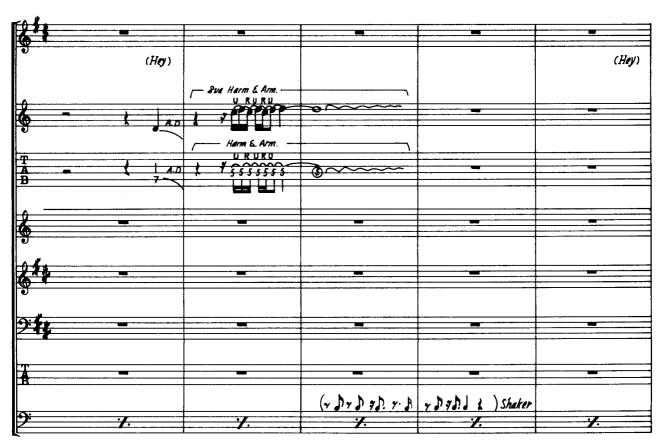
Words & Music by J. Bon Jovi, R. Sambo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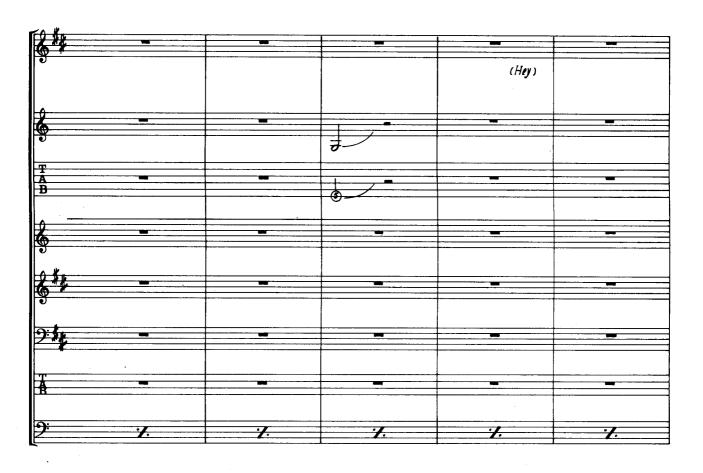
A면 톱인 이 넘버는 베이스 드럼의 비트에 실려 페이드 인 해오는 일렉기타의 음이 효과적으로 들어가 앨범의 인트로덕션으로서도 충분히 자극이 있는 것. 일렉기타의 튜닝은 줄을 전부 1음씩 내려둔다. 인트로 부분에는 하모닉스 & 암, 또는 리허설마크 [문의 기타 솔로 중에서도 암위즈 피킹이라는 것과 같이 암을사용하고 있는 곳도 많음으로 레코드를 잘 듣고 필링을 파악하고아밍의 연습을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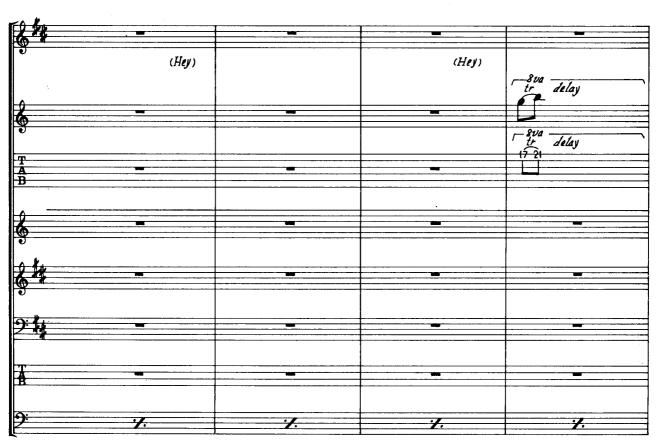
리허설 마크 圖와 [C]의 부분을 기본적으로 2마디 패턴을 일렉기타와 일렉 베이스가 유니즌으로 연주하는 것인데 중요한 패턴이므로 한음한음 소중히 연주하자. 키보드는 오르간계의 음이사용되어 있어 온음표의 화음을 연주하는 백킹이 많으나 처음에확고히 화음을 내도록 주의하자. 끝 마디에서는 각 악기의 음을확고히 끊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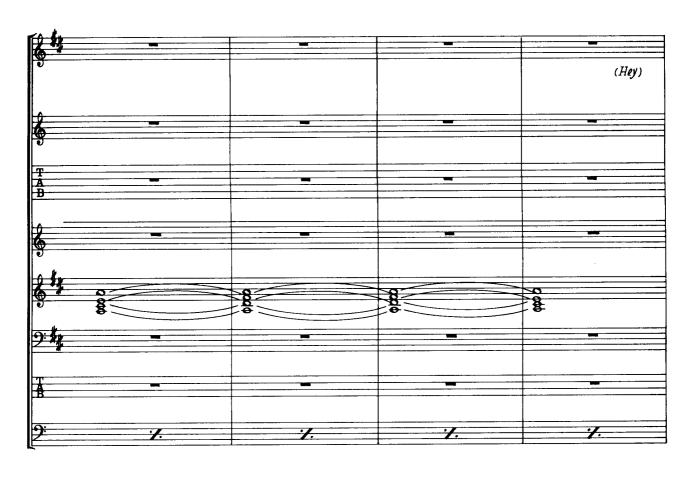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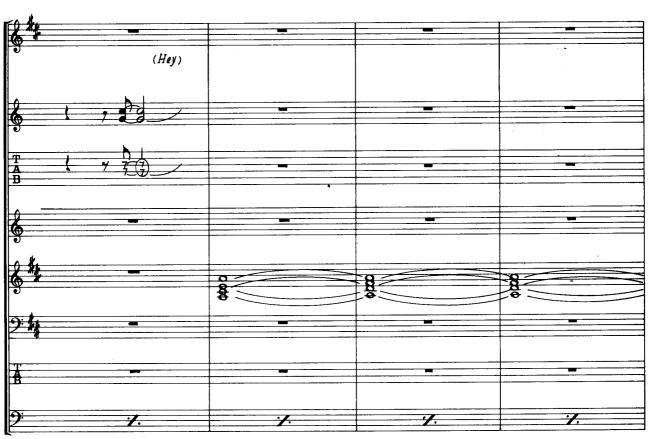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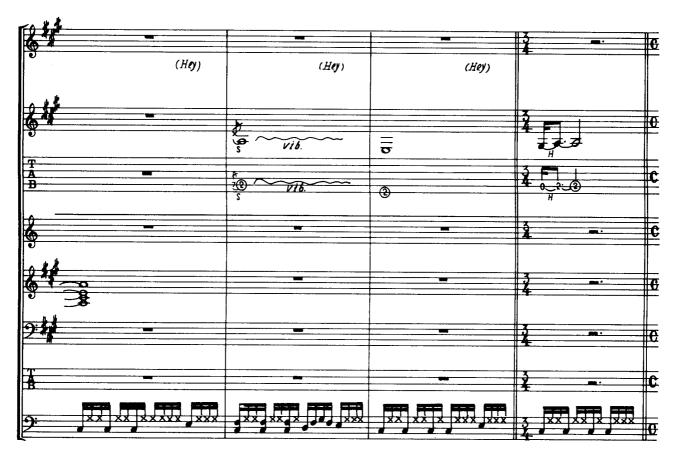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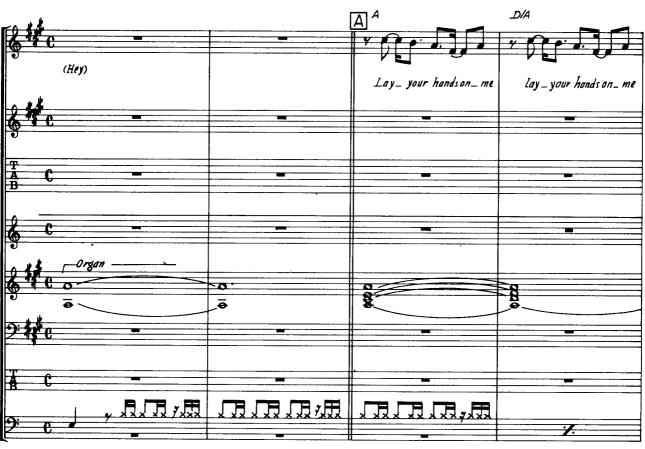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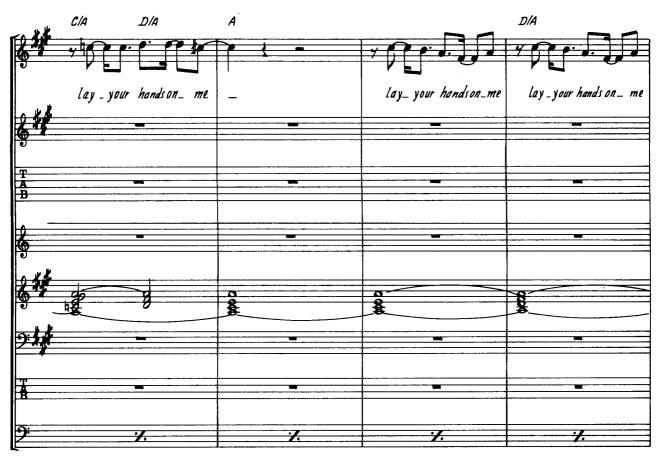


































BED OF ROSES

베드 어브 로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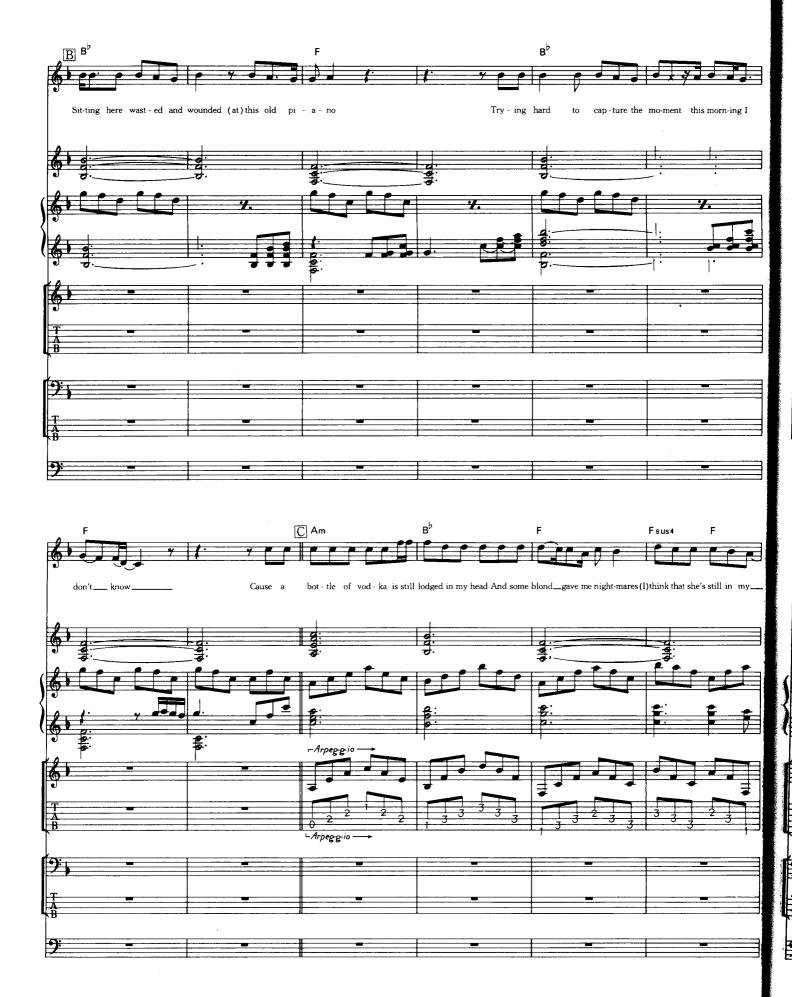
Words & Music by J. Bon Jo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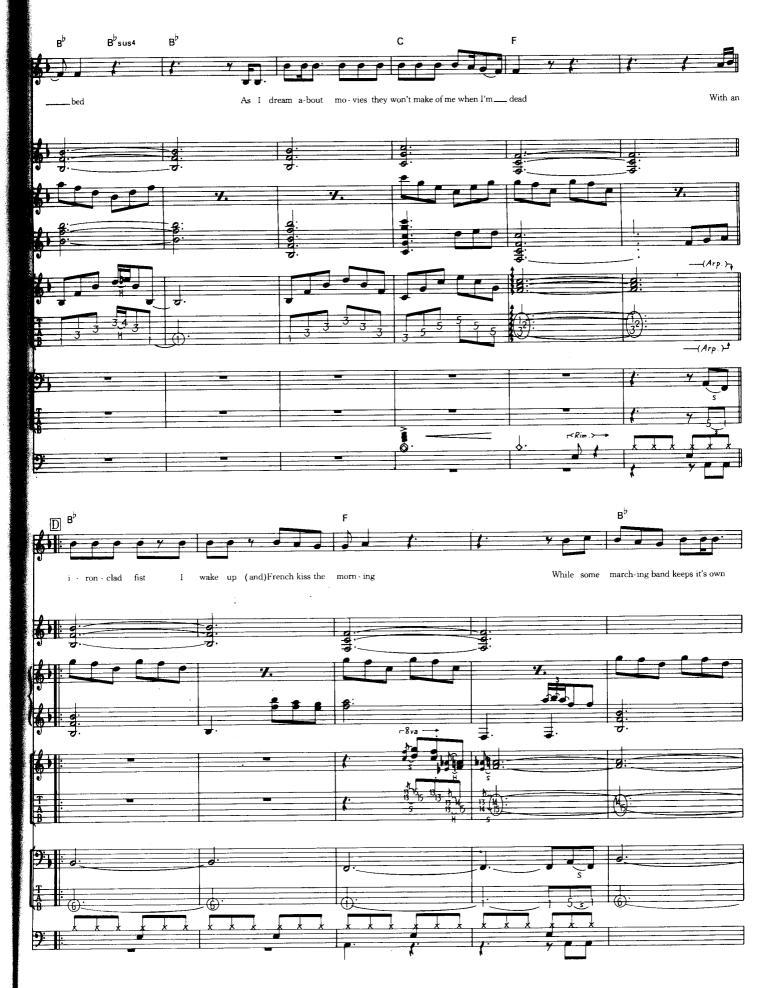
앨범「Keep The Faith」의 5번째에 수록된 슬로우 템포의 발라드 곡이다. 리듬은 8분의 6박자로 블루스와 같이 1마디가 2박인 3잇단의 흐름으로 생각하면 쉽다. ① 1마디째에서 기타의 뮤트는 초킹으로 오른손 밑부분을 브릿지에 대고 4~2번줄을 뮤트하여 4번줄부터 다운 스트로크로 재빨리 피킹해서 1번줄 음만낸다. 이때, 기보된 16분음표는 초킹할때의 장식음표처럼 리듬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주의하자. 또 ②부분에는 윈도우 차임이

들어 있는데 악보에는 생략했다. ⓒ의 9마디째부터 ⑩의 8마디까지의 드럼은 스네어의 테두리를 치는 림 쇼트 플레이이다. 보컬은 8분의 6박자 리듬에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은 노래하기 힘들다. 더우기 악보보다 휠링을 앞세워 노래한 부분이 많으므로 원곡을 잘 듣고 뉘앙스를 포착하자. 그러나 먼저 리듬에 익숙해지는 것이 순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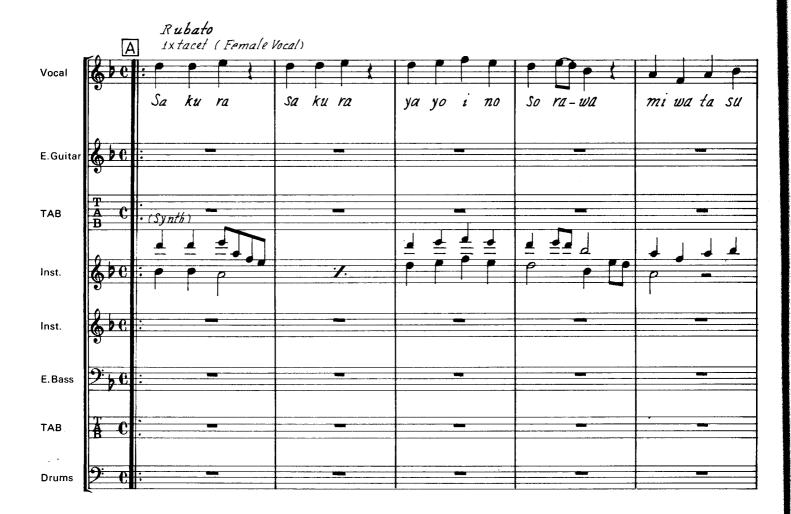
TOKYO ROAD

토교 로드

Words & Music by J. Bon Jovi & R. Sambora

갑자기 「사쿠라, 사쿠라」하는 멜로디가 나와서 깜짝 놀라게 된다. 거의 노 템포의 신서사이저와 여성 보컬 뒤, 완전히 다른 템포로 곡이 시작한다. 기타 리프가 메인으로 되어 있는데 암을 들어 올리면서 피킹(다운 피킹)하는 것만으로 음정이 미묘하게 변한다. [C]는 싱글 노트의 백킹이다. 뮤트하는 느낌으로 다운 피킹으로만 플레이 하자. 5, 6마디는 같은 프레이즈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되어 있다. 리피트 뒤에 신서는 목관계통의 사운 드, ⑥의 5마디부터는 다시 아밍하면서 플레이 한다. ⑥의 앞 2 마디는 전멤버가 함께하는 3박 프레이즈이다. 정확히 맞추자. 괄호 2의 기타는 아밍 딜레이에 의한 것. 페이드 인 하는 신서는 아마 시켄서에 의한 것일 것이다. 또 베이스 드럼이 2박째에만 들어있으므로 마디의 시작을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BAD MEDICINE

배드 메디슨

by Jon Bon Jovi, Richie Sambora and Desmond Child

기타는 얇고 가벼운 음과 톤을 최인 디스토션과의 2개의 사운드를 잘 구분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하드 록 넘버이다. 전체적으로 개방현을 이용한 프레이즈가 많고 낮은 포지션에서의 플레이가 중심이 되지만 뮤트나 커팅과 같은 작은 기교를 콘트롤하기 어려워짐으로 주의하도록 한다.

베이스는 곡이 가라앉은 분위기의 하드 록 넘버이므로 베이스 라인을 무겁게 쳐내는 것이 요점이다. 기타와의 유니즌이 곳곳에 눈에 띄고 싱코페이션이나 섬세함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전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서 미스 톤을 내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정확한 리듬으로 비트를 내도록 한다.

드럼은 거친 중에도 샤프하고 스트레이트한 감정이 떠오르는 것같은 플레이는 특필할 만한 것이다

필 인 등도 8분으로 밀어붙이고 헤비급의 베이스 드럼과 원기 왕성한 스네어로 공격하자. 곡의 볼테이지가 내려가는 부분에도 2, 4박의 스네어는 파워있게 두드릴 것.

























I'LL BE THERE FOR YOU

아일 비 데어 포 유

by Jon Bon Jovi and Richie Sambora

연주 해설

인트로 부분 5마디째만 $\frac{2}{4}$ 박자인 것에 주의하자. 일렉 기타의 리프는 레코드에서 필링을 포착하자. 리허설 마크[A]의 기타도 1음씩 소중히 치자, 또 8마디째에서는 드럼과 일렉 베이스 음을 정확히 끊도록 하자. 리허설 마크[B]부분의 8마디째도 마찬가지이다. 리허설 마크[C]직전의 1마디도 $\frac{2}{4}$ 박자이기 때뭄에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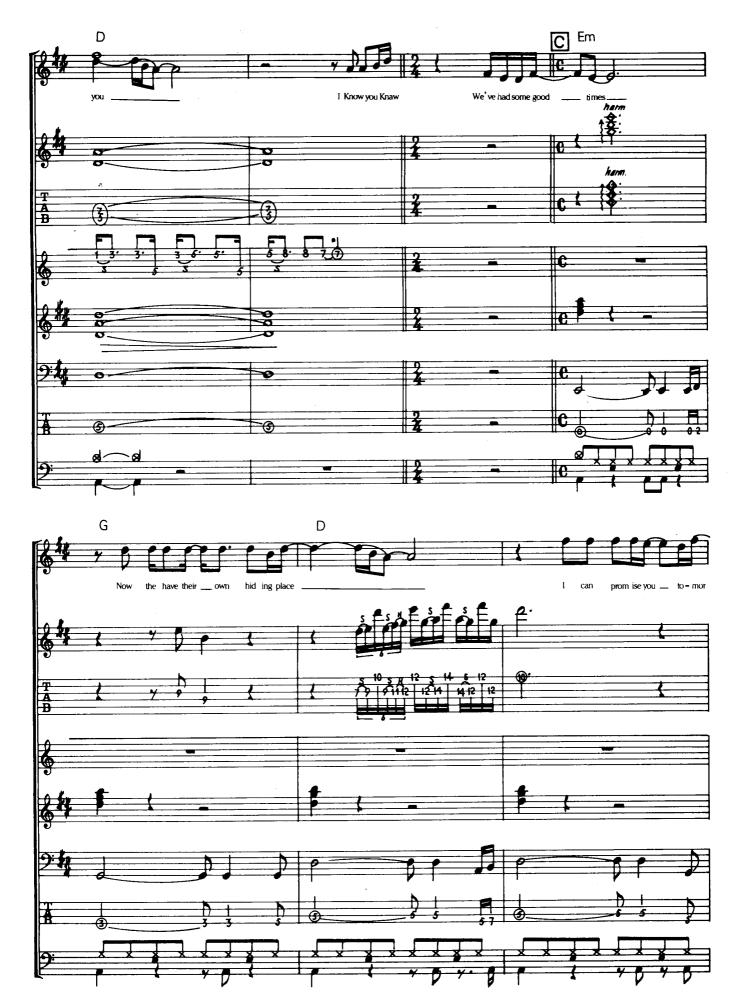
리허설 마크 ①에서는 기타 악보가 D.S.일 경우는 다시 표시해 놓았는데 필링을 중요시하며 플레이하자. 리허설 마크 ① 기타 솔로에서는 6마디째, 7마디째의 부분이 적당히 되지 않도록 연습하자. Coda부터는 전조되므로 보컬에 신경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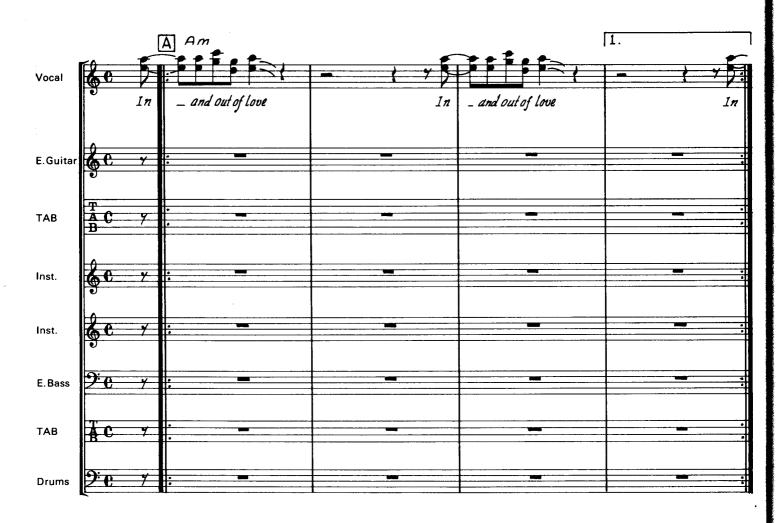
IN AND OUT OF 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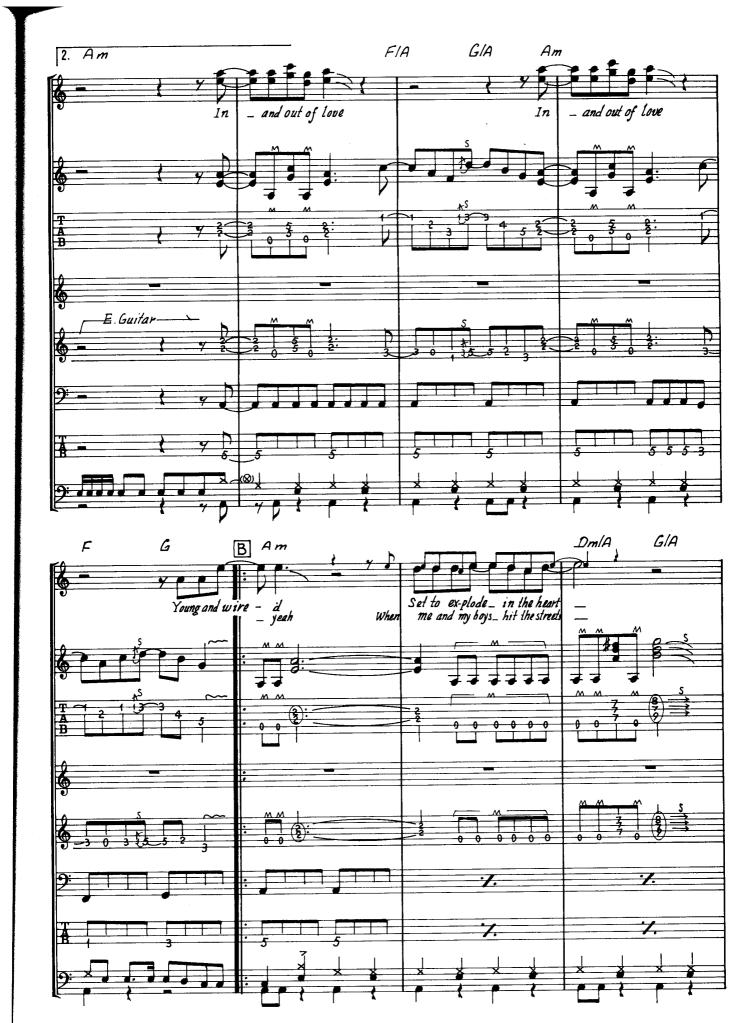
인 앤드 이웃 어브 러브

Words & Music by J. Bon Jovi

코러스의 페이드 인부터 시작한다. 리듬 섹션에 4마디가 이곡의 기본 패턴이다. 2, 4마디에 나오는 아르페지오 프레이즈는 하나하나의 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연주하자. 圖도 4마디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첫마디는 2박에 액센트가 온다. 마디의시작을 놓치지 않도록. 기타 파트에 나오는 X표 음표는 브러싱노트로, 왼손으로 줄을 뮤트하면서 피킹하여 음정이 없는 음을내는 테크닉이다. [인의 7~8마디는 유니즌 프레이즈로서 쉼표부분이 막히지 않도록, [D]에서 베이스는 토닉페달(A) 부분과

코드의 루트에 맞는 부분을 구분해서 사용했다. 8마디째는 아밍에 의한 글리스 다운이다. 아밍하는 타이밍은 레코드를 듣고 필링을 잡아보자. 또 이부분은 전멤버의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리듬에 주의해서 정확히 맞추자. [F]에서 기타 애드립 파트는 프레이즈의 마지막에 아밍을 사용했다. 또 1~3마디 Guitar Solo 2x의음표에 붙은 「//」표는 트레몰로를 나타낸다. 오른손으로 재빠르게 얼터네이트 피킹을 하면서 하는 테크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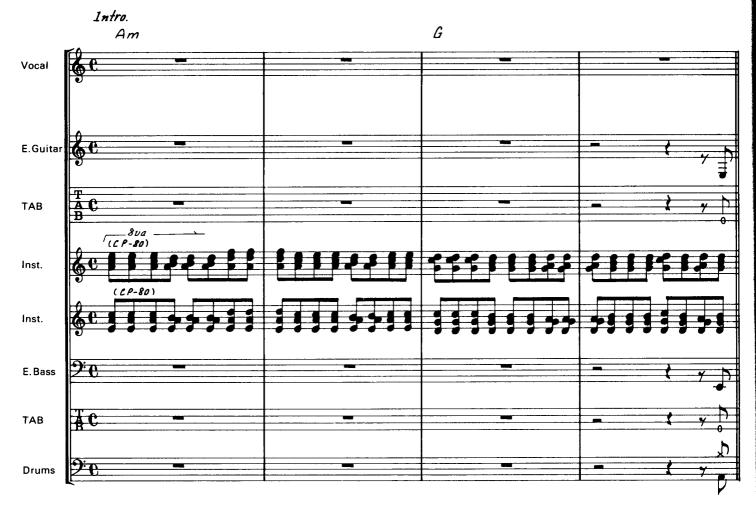


RUNAWAY

Words & Music by J. Bon Jovi & G. Karak

인트로는 피아노(아마 CP-80일 것이다)의 3박 프레이즈, 특정한 음에 액센트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서 연주하자. 기타는 5도 하모니가 메인인 백킹이다. 오른손은 다운스트로크만 피킹한다. 사운드 메이크는 오버 드라이브+딜레이의 세팅이다. 인트로 끝에 나오는 스크래치는 피크로 줄을 문지르는 테크닉을 말한다. 여기서는 낮은음 줄을 브릿지 측에서 헤드 방향으로 문지르고

있다. 집의 기타, 베이스, 드럼 파트는 1회째의 것으로 되돌이할 때 기타, 베이스는 8분음표의 백킹(집의 아랫단 기타와 베이스 참조), 드럼은 보통의 리듬 패턴이다. 집집는 기타 솔로. 어려운 테크닉은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트릭을 쓰지 못하므로 한음 한음 정확히 연주하자.





















NEVER SAY GOODBYE

네버 세이 굿바이

Words & Music by J. Bon Jovi & R. Sambora

인트로의 기타가 숨은듯한 음색으로 옥타브 위와 아래를 치고 있다. 이것은 곡 가운데 여러번 나오는 중요한 멜로디이므로 신 경을 써서 친다. 🗚부분의 백킹 기타는 볼륨을 내리고 맑은 음 으로. 그리고 B부터는 다시 볼륨을 올려 숨은 듯한 음색으로 연주한다. 🔘의 기타 솔로는 1마디, 5마디 첫부분에서 음을 가 법게 두들기듯 하며 암을 내는 곳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이 솔로는 앞 5마디까지의 기타 솔로 뒤에 5마디부터 다른 트랙을 기타가 감싼다. 키보드는 신서의 올갠 계통의 음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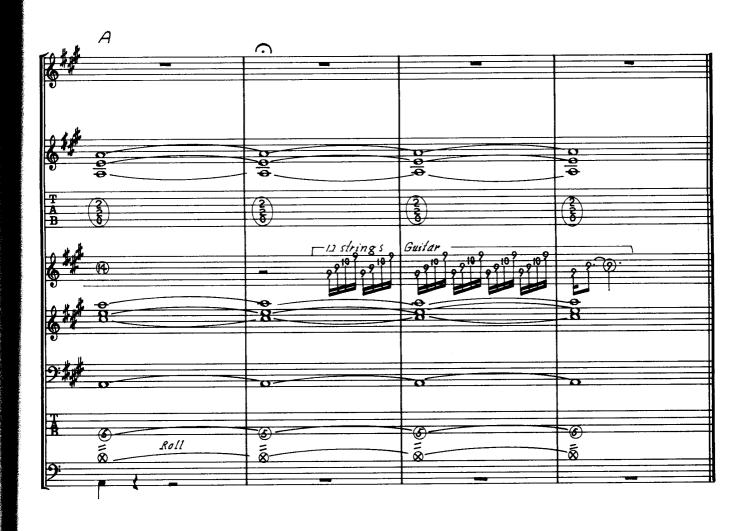












BLAZE OF GLORY

볼레이즈 어브 글로리

Words & Music by J. Bon Jovi

보컬인 존 본 조비의 솔로 앨범 "BLAZE OF GLORY"에 수록된 타이틀 넘버이다. 밴드로서의 곡은 아니지만 존의 대히트작이기 때문에 수록된 것 같다. 집의 기타 2는 도브로의 슬라이드 기타에 의한 플레이로 튜닝이 오픈 D(6번줄부터 차례로 D, A, D, F[#], A, D음)로 돼 있으므로 주의하자. 이후에 나오는 슬라이드 바를 사용한 기타 2부분은 모두 이 튜닝으로 플레이하고 있다. ⓒ부터의 기타 2는 노멀 튜닝의 어쿼스틱 기타 코드 플레이이다. 图는

일렉 기타에 슬라이드 바를 사용한 기타 솔로이지만 이쪽은 노멀 튜닝이다. 이 솔로는 핑거링 플레이도 얽혀 옴으로 슬라이드 바는 새끼손가락에 끼워서 연주하다. 당연히 미스톤이 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①의 2마디째는 일시적으로 rit…(서서히 템포를 느리게 해갈 것)를 하고 있으나 3마디째 드럼의 필인과 같이 곧 이전의 템포로 되돌아가고 있다. 엔딩, [②의 4마디부터는 rit…해서 그대로 프리 템포로 페이드 아웃하고 있다.























SHE DON'T KNOW ME

쉬 돈 노우 미

Words & Music by Mark Avsec

기타는 오버 더빙을 구사한 멜로디와 어쿠스틱의 아르페지오 백킹, 그리고 베이스 라인에 따른 디스토션에서의 단음 연주라는 구성으로 특히 어려운 플레이는 없을 것이다. 다만 신서사이저와 유니즌의 백킹 아르페지오에서는 타이밍에 주의하자. 또 인트로의 하모나이제이션도 리듬을 정확히 맞춰서 칠 것.

베이스는 신서사이저 베이스인 것 같으나 8비트의 루트 연주가 주축이 되어 4줄 베이스로도 전혀 문제 없이 연주할 수 있다. 오 히려 밴드에서는 신서사이저 베이스보다 파워플해져 사운드 전 체에 임팩트가 주어질 것이다. 신서사이저 베이스로 연주할 경 우에는 8분음표라도 꽤 스타카토 기미로 돼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라다.

드럼은 매우 베이직한 8비트로 곡상에 거슬리지 않도록 멜로 디를 아름답게 흘려간다. 테크닉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거의 없으나 굳이 말하면 ⑥에서의 신서사이저 드럼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가 포인트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임팩트가 강한 곳인만큼 연구가 필요해진다. 세트에 패드계를 짜 넣을 수 있으면 베스트 이다.



① (Gt.): 기타 4대로 멜로디의 하모나이제이션을 들려준다. 비브라토의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지 않으 면 울림이 무너짐으로 주의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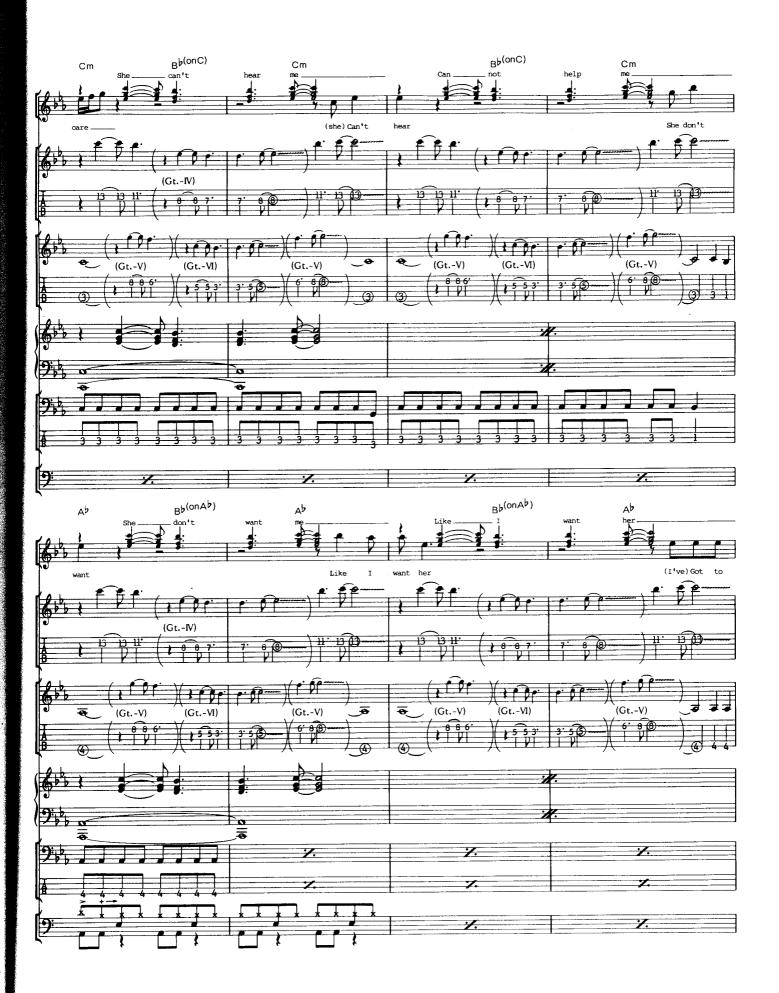
② (Ba): 원곡은 신서사이저 베이스같지만 4줄 베이스로 플레이할때는 기보한 그대로가 좋을 것이다. 신서사이저 베이스에서는 옥타브 아래의 음도 넣고 있는 것 같다.



③ (Dr.): 킥의 패턴을 바꾸는 건만으로 전체의 분 위기가 이렇게 다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샘 플이다.















SHOT THROUGH THE HE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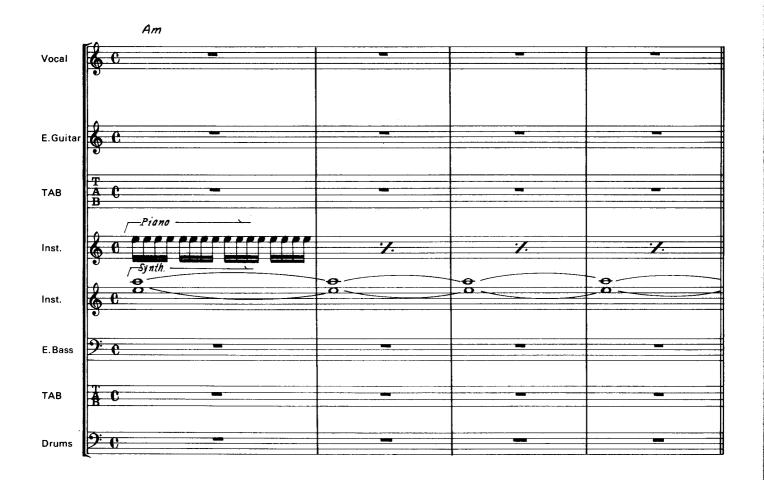
숏 쓰루 더 허트

Words & Music by J. Bon Jovi & J. Ponti

add9 등의 텐션음을 교묘하게 사용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내는 기타 아르페지오로 시작되는 이곡은 피아노의 아르페지오로 바뀌면 하드한 드라이브가 좋은 사운드이다. 특히 조용한 부분에서의 피아노 아르페지오는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이다. 키보드 담당자는 힘써서 연습하는 것이 요망된다. 인트로에서 페이드 인하는 피아노의 16분음표는 양손을 사용해서 대처하자.

기타에서는 곡의 중간 쫌에서 투인 리드가 나온다. 그들의 라이브에서는 Vo의 존도 기타를 연주하고 있고 리치와 두 사람이

이 프레이즈를 연주하고 있다. 핑거링은 간단함으로 2음 동시에 연주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3도의 하모나이제이션의 경우 디스토션된 기타의 음으로는 아름답게 울리지 않음으로 메인인 아래쪽 프레이즈를 연주하자. ①의 7, 8마디는 라이트 핸드. 우선, 오른손의 손가락으로 9/3(E음)을 내어 풀링. 초킹뒤는 그대로의 상태로 12/3를 오른손으로 해머링 & 풀링. 다음에 왼손으로 1음업시켜둔 7/3을 다운한다. 14/3와 15/3의 바로 앞에서는 잽싸게 7/3을 1음 업시키고 나서 각각을 라이트 핸드한다.







































BREAK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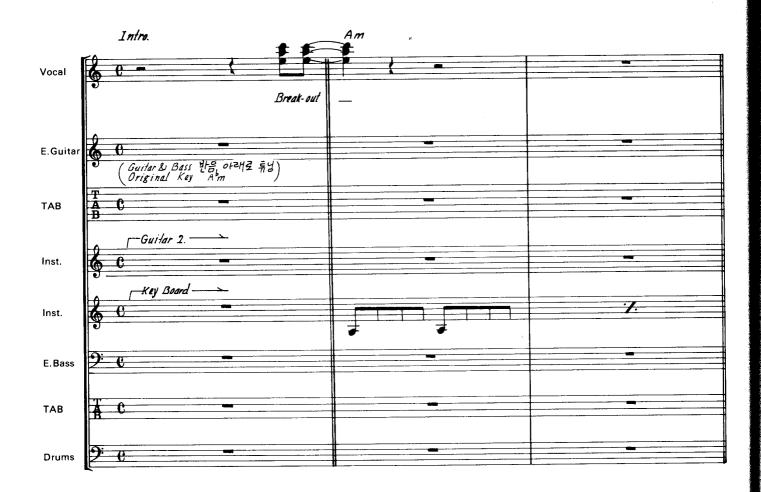
브레익이웃

Words & Music by J. Bon Jovi & D. Rashbaum

해비메탈에서는 보통인 기타, 베이스의 반음 내림 튜닝이지만 그들로서는 진귀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보컬 키의 관계이 겠지만 그 몫만큼 노래하기 쉽게 돼 있다. 신서사이저는 키 트랜 스포즈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코드 네임을 모두 반음 내려서 플레이하지 않으면 안됨으로 주의를 요한다. 곡의 대부분은 집의 4마디 패턴임으로 밴드로 연습할 때는 그 부분만을 되풀이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인트로라든가 🖫의 4마디 등에 등장하는 기타에 의한 스크래치 & 글리스는 피크로 줄을 헤드로 향해서 문질러 올리면서 왼손이

그 뒤를 추적하는 것처럼 글리스 다운해가는 것으로 충분히 디 스토션이 걸린 음으로 이것저것 시험해서 분위기를 파악한다.

기타 솔로에서는 암 플레이가 있지만 리치 산볼라는 그렇게 암을 장기로 하는 타입은 아님으로 비교적 쉽게 돼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부분에서는 꽤 빠른 연주도 섞으면서 전체로서는 매우 빈틈없는 플레이임으로 잘못이 곧 눈에 띄는 만큼 힘을 기울여 연주하여야 한다. 리듬은 변함 없는 저스트 비트 임으로 드럼과 베이스는 호흡이 딱 일치할 때까지 철저히 연습해야 한다.























D.S. to B (with Straight)







7.







F. O.

GET REA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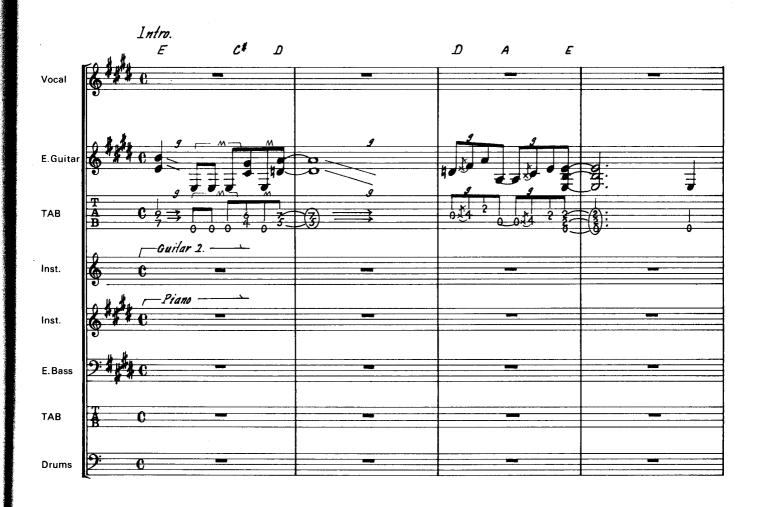
겟 레디

Words & Music by J. Bon Jovi & R. Sambora

현재는 록의 분류도 극히 다양해져 파워 메탈이니, LA메탈이니 뭐니 하고 뜻도 알 수 없는 것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으나 한 옛날에는 브리티쉬 록과 아메리칸 록의 2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었다. 중후하고 어딘가 마이너한 브리티쉬에 대해서 나라가 넓기 때문인 것만은 아니겠지만 상쾌하고 밝은 아메리칸 록이라는 대조적인 스타일은 음악 팬 사이에서도 곧잘 화제가 된 것이지만 이곡은 바로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타의 리프에서는 개방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으로 다른 개방현이 노이즈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플레이한다. 솔로에서도

□의 3마디째가 개방현을 섞은 트릭키한 플레이가 돼 있다. 프레이즈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3잇단음표의 리듬에 끼워넣는 일이어려울 것이다. 또 실제로는 도중에서 더빙된 곳도 있고 그대로 플레이하는 경우는 포지션 이동도 격렬함으로 그와 같은 곳은 각자의 필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절대로 어렵지 않음으로 신중히 노력하면 반드시 훌륭한 연주가 될 것이다. 연주자체는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코러스를 서로 엮어가는 것등도 시원스럽게 결정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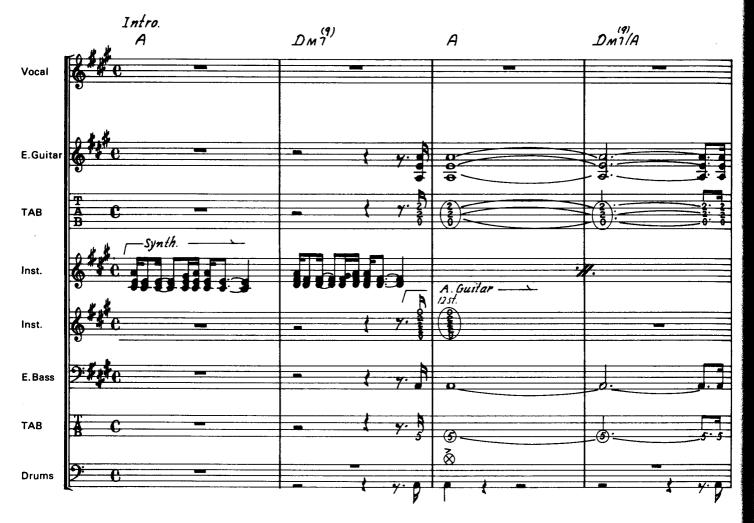
SILENT NIGHT

사일런트 나잇

Words & Music by J. Bon Jovi

인트로의 신서사이저는 부라스 계통의 사운드이다. 16분음표 1개분의 길이가 딜레이 되고 있다. A. Guitar는 싱코페이션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높은음줄을 많이 사용하는 아르페지오픙의 프레이즈로 연주하자. ৷ 마랫단의 신서는 스트링스 계통의 사운드이다. [] 는 기타 애드립 파트, 1마디와 끝마디에 나오는 16분음표 프레이즈는 1음 간격으로 피킹하여 그 사이의 음은 암으로

내고 있다. 5, 7마디는 매우 세밀한 음으로 되어 있다. 왼손은 별로 문제없지만 오른손은 정확한 얼터네이트 피킹으로 한음한음을 깨끗이 내자. 7마디 아랫단의 기타는 더빙된 것으로 메인기타에 대응하는(1박씩 빗겨감) 프레이즈이다. 서로 정확히 연주하지 않으면 음표가 세밀한 만큼 엉키기 쉬움으로 주의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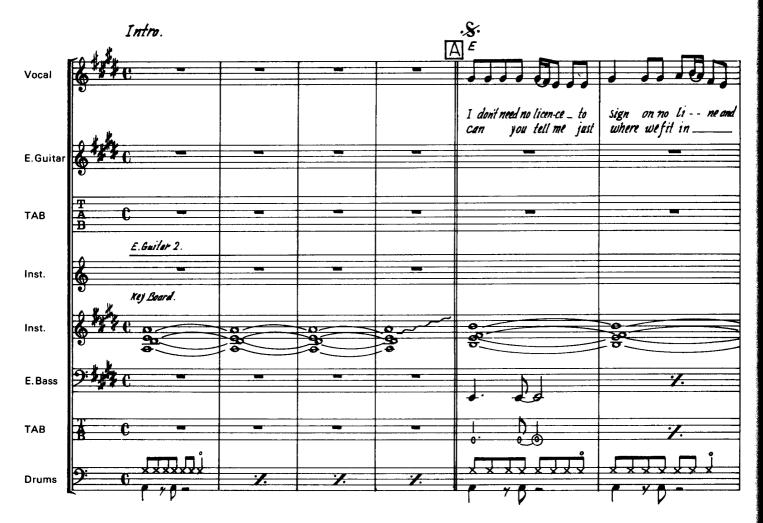


LIVING IN SIN

리빙 인 신

Words & Music by J. Bon J, Bon Jovi

키보드가 약간 느긋한듯 활약하는 곡이다. 먼저 인트로부분 4 마디에서 리허설 마크 🖺로 연결하는 것을 주의하고 온음표 화 음을 연결할 때 리듬에도 주의하자. 📵부분은 🖸에 연결되는 핵 심부이므로 레코드에서 느낌을 포착하자 🖸에서는 일렉기타의 커팅을 확실히 하고 D부분 4마디부터 일렉기타는 효과음의 역할을 하게 된다. Coda의 4마디에서 드럼은 의외로 어렵다. 잘 연구해 보자.

















DRY COUNTY

드라이 카운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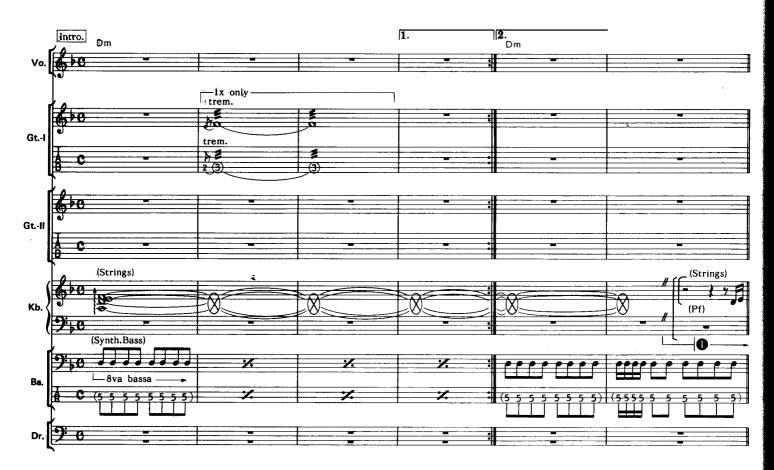
Words & Music by J. Bon Jovi

기타는 피아노와의 유니즌 멜로디로부터 들어감으로 튜닝을 특히 엄격하게. 리피트가 많기 때문에 악보를 잘 확인하면서 연 주해갈 것. 백킹에서 아르페지오를 주체로 한 곳은 각 코드폼을 완전히 누르는 것이 포인트. 불필요한 뮤트 등을 넣지 않고 깨끗 한 음을 내어 사운드에 퍼짐이 있게 한다.

베이스는 슬로 템포의 넘버로 圖까지는 기본적으로 8비트 패턴, ②부터는 싱커페이션이라는 구성이다. 곡자체는 대단히 길지만 블록 마다의 패턴을 익혀 버리면 진행이 알기 쉽다. 기타 솔

로에서의 프레이즈는 백킹 기타, 키보드와 리듬을 합친 것으로 드럼의 킥과 심벌즈를 가이드로 하면 좋을 것이다.

드럼 전반은 심벌즈 롤인데 D.S.에서 🗓로 되돌아갈 때마다 리듬 패턴이 변화한다. 원곡을 잘 듣고 리피트마다의 사운드를 체크하기 바란다. 또 전반부에서는 하이해트와 림 쇼트로 사운 드에 퍼짐을 주고 있기 때문에 페달 워크, 림음의 흩어짐만은 피하자.



① (Kb.): 인트로 6마디부터 시작되는 피아노 멜로디에 12마디부터 기타가 유니즌으로 더해진다. 밸런스로서는 피아노가 메인으로 거기에 기타가 실리는 느낌이 좋을 것이다.



② (Gt.): 피아노와 유니즌으로 멜로디 연주. 싱글 코일계의 픽업에 코러스, 리버브를 더한 깨끗한 사운드로 플레이하고 있다. 멜로디의 1, 3마디는 초킹부터 시작되는 프레이즈이므로 음정에 주의가 필요하다.



③ (Dr.): 노래에서의 패턴. 1X는 휴식이지만 D. S.할때 마다 하이 해트 +림 쇼트, 킥 심벌즈가 더해 진다. 각각의 사운드를 확인해두기 바란다. 템포가 느림으로 주의할 것.









④ (Gt.): 곡중에 꽤 긴 솔로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④에서 사용되는 F메이저 펜타토닉의 포지션이 중심이다. 템포가 느리고 잇단음표도 많음으로 프레이즈 하나하나의 리듬을 정확히 구사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⑤ (Gt.): 5번줄, 3번줄에서의 옥타브 프레이즈, 3프렛 부근부터 단숨에 19프렛까지 뛰어올라간다. 불필요한 줄을 집게 손가락으로 뮤트하고 옥타브의 음정을 깨끗하게 내면서 포지션을 이동시키자. 슬라 이드의 리듬에도 주의를 요한다.

I BELIEVE

아이 빌리이브

Words & Music by J. Bon Jovi

기타는 인트로의 16분음표 백킹이 메인 패턴으로 스케일이 큰 넘버이다. 프레이즈에 교묘하게 백킹을 받아들여 플랜저의 효능 을 잘 살리는 것으로 악센트를 붙이고 있다. 퍼짐이 있는 사운드 의 솔로를 초킹이나 풀링을 많이 사용해서 원 피킹으로 연주하고 기타 플레이에 폭을 갖게 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하기 바란다.

베이스는 16분음표의 루트를 계속 연주한다. 특히 눈에 뛰는 프레이즈나 리듬 패턴은 없고, 어떻든 정확한 올터네이트 피킹 으로 리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LOW-D음을 많이 사용하 고 있으나 플레이 자체는 심플함으로 4번줄만을 1음 내려서 튜 닝하든 5번줄 베이스를 사용하든 어느쪽으로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드럼은 16분음표의 드라이브를 갖는 파워플하고 타이트한 드러밍이 특징적이다. 4분음표의 힘찬 하프 오픈 하이해트가 인상에 남는다. 곡의 구성은 실로 심플하여 리듬 패턴은 흐름에 의해서 구분 사용하는 2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것을 적절히 억양을 붙여 구분해서 두드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① (Gt.): 꽤 하드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 에서의 메인 백킹 패턴. 너무 일그러지게 하면 생생한 필링이 없어짐으로 사운드 메이킹에는 충분히 유의하기 바란다.

② (Dr.): 스네어의 16분음표 연타로 서서히 크레 센도시켜 가는데 풋 하이해트로 확고히 카운트를 하 면서 정확한 리듬으로 두드린다.



③ (Ba): 루트를 묵묵히 연주하는 라인이다. 하이 해트가 4분음표이므로 비트롤 리드하는 것같은 기분으로 한결같이 리듬 키프한다.

④ (Dr.): 하이해트의 하프 오픈을 파워플하게 두 드리고 1박째의 베이스 드럼으로 16분음표의 드라이 브롤 내자.





⑤ (Gt.): 보틀네크에서의 멜로디 연주. 몇번이나 되풀이되므로 정확히 재현하도록 한다. 보틀 네크 주 법의 경우 줄의 높이가 지나치게 낮으면 보틀네크와 프렛이 접촉되거나 움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거나 함 으로 주의.







⑥ (Gt.): 이것도 아마 보톨네크에 의한 것이리라. 보톨네크로 천천히 상행하고 완전히 올라간 곳에서 바를 던져서 내려뜨리고 즉각 초킹으로 이행한다. 오버 더빙일 가능성도 있으나 라이브롤 위해서 연습해두자.









